

사랑의 고도를 높여라

작성일 : 2012. 5. 30. 수

작성자 : 안선영

[월명동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주님은 자꾸 ‘목이 메인 이별가를 ~ ’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. 저는 이별이 싫어서 다른 찬양을 하면 다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.

“주님, 같이 가잖아요. 저 이별 싫어요.”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주님은 “지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이별이야.”

“주님, 가슴 아파요.” “내 심정은 찢어진다.” “주님, 제대로 할게요”]

* 성자 예수님 말씀 *

사랑아.

이 노래는 선생이 수도생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수도 생활, 기도 생활에 चु고 배고파서 ‘내가 미친걸 거야, 내가 미친 걸 거야.’ 하면서 돌이켜 가서 다시 왔을 때 내가 내 신부 앞에서 부른 노래이다.

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뜻이 아니다.
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지.

너희 선생 그 죽을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하였어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

“주님, 이 사랑 너무 아파요.

이 사랑 너무 힘들어요.

주님, 배고파요. 주님, 추워요.

주님, 나보고 미쳤다고 해요.” 하며 그는 소리쳤지만

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메아리뿐

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.

이 길은 오직 신부의 책임분담.

나와의 사랑 오직 신부가 세워야 하는 책임은

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일.

저 사탄이 노려보고 있다.

저 사탄은 조건을 걸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

나는 완벽한 사랑을 위해

내 신부 선생을 기다리며

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

내가 이별을 하고 싶어서였겠으나.

오직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역사 해 왔는데

온 맘 온 심정 다 찢어지는 심정으로

아픔으로 부른 노래이다.

내 모든 심정 담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다.

그가 알아주길, 그가 내 맘 받아 주길

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고 그가 나의 손을 잡아 주길

간절한 맘 그 애절한 맘으로 부른 노래이다.

그가 내 손을 잡아 주었을 때

그가 자신의 모든 아픔 고통을 뒤로 한 채 나를 안은 것이다.

난 울었다.

그 사랑에 난 왈칵 눈물이 났다.

사랑아.

이 땅 어느 곳에서

난 이런 사랑 받아 본 적이 없어.

심정의 사랑, 완벽한 신부의 사랑,

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,

난 심정의 눈물을 흘렸다.

그와 나는 하나 한 몸 한 심정이 되었다.

나는 그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아.

그도 나의 손을 이제 결코 놓지 않아.

한 번 사랑, 영원한 사랑,

하늘 사랑, 변함없는 사랑,

그는 내게 그러한 사랑을 준 첫 사람.

오늘도 그는 간다, 내 몸 되어.

(주님, 월명동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느끼겠어요.)

사랑아.

그는 내 몸, 그는 하나님의 몸.

이 땅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유는

오직 사랑을 만나기 위함이다.

창조의 뜻을 실현시키는 이 때인 것이다.

창조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몸을 쓰고 이루고 계신다.

사랑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.

깊은 뜻을 알고 그를 맞는 자,

곧 창조목적의 이룬 자가 되는 것이다.

역사는 땅에서 그리고 역사는 과정 가운데

진행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.
하나님의 몸이 되는 자,
기어이 이 지구에 나타났으니
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다.
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.

그러니 눈치 좀 채라.
몽그적몽그적 거릴 때가 아니야.
그것은 눈치 못 챌 것이지.
화들짝 놀래어 칠보단장하고 입을 맞아야지.
선생도 화들짝 놀래어 나를 맞은 것 아니냐.
깨닫고 한 번도 변함없이
일편단심의 마음과 사랑을
내게 100% 아니 그 이상 차고 넘치도록
그는 내게 주었다.
너희는 어찌할 것이냐.
내가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하겠느냐.

(아니예요, 아니예요. 주님)

사랑아.
이별은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지.
그러하니 얼른 눈치 채고 칠보단장하여 임 맞자.
안녕